

위안화 절상과 세계 경제 변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유병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위안화 환율 절상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에 앞으로 6개월 안에 환율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환율 제도 변경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對中 환율 특사까지 신설하였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의 對美 수출품에는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경제 주권을 내세워 완강히 버티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환율 제도 변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7월의 G8 정상 회담이나 9월의美中 정상 회담 이전에, 중국이 선진국들의 통상 압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습적으로 소폭이나마 환율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예견된다.

위안화 절상 논의를 통해 한 가지 확실시되는 것은 앞으로 중국의 환율 제도는 점차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와 협력 양상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우선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 운영이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율 절상은 일단 그 크기와 상관없이 중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다. 환율 변동폭이 커짐에 따라 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도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경제 정책 운영 능력과 금융 시장 인프라도 필요해진다. 환율 절상으로 低價 경제의 한계에 봉착할 중국 경제는, 이제 경제 선진화와 기술 혁신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비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 발전 전략도 본격화할 것이다.

중국의 환율 제도가 변화되면 미국 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일단 위안화 절상의 일차 목표인 무역수지 적자 개선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 결과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소비 성향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중국의 저가 상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입장에서, 위안화 절상으로 큰 폭의 적자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다. 오히려 미국 채권 시장이 위축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높아져 미국 경

제에 부담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개선이 미흡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對美 혹 자국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세계 각 국들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앞세워 近隣窮乏의 제로섬 게임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한다면, 세계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성장세가 약화되는 음울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환율 제도 변화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對中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제에 과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세 둔화와 불안정성 증대 그리고 경쟁력 강화는 모두 한국 경제의 입지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환율 절상이나 시장 개방과 같은 미국의 對韓 통상 압력까지 가중된다면, 국내 수출 산업뿐만 아니라 내수 서비스 산업도 그간의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다.

당장 위안화 절상이 우리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이로 인해 예상되는 세계 경제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불안과 경쟁력 강화로 우리 경제에 과급될 '차이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중국 경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원-엔-위안화 공동 통화 제정과 같은 한중일 경제 협력 방안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세계적인 통상 마찰 증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주요 통상국의 각계각층을 상대로 하는 '풀뿌리' 통상 외교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중국 경제의 성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부단한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국, 미국 이외의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